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공동체 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오후 2시에 공동체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지역별 사랑방 전반기 모임은 17일(금)까지입니다.
방별로 전반기 방 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학교 여름방학 일정
꾸러기학교 : 7월15일~8월19일
어린이학교 : 7월15일~8월23일
멋쟁이학교 : 7월11일~8월22일
- 여름공동체생활이 7월30일(목)~8월2일(일)까지 있습니다. 특히 물질의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늘푸른 사랑방 박인혁 군이 7/13(월) 논산 훈련소로 입대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4 - 28 호

2026년 7월 1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선교의 최전선을 살짝 전해듣고

5월에 선교공동체에서 용계리 교회를 방문을 주최하여 여러 식구들과 다녀왔습니다. 1박 준비들을 하고서 아침 일찍 모여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휴게소를 3번쯤 들리고 나니 도착해있었습니다. 박인옥 목사님이 미소와 함께 환대해주시며 이름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거기에 점심상을 진수성찬으로 가득 차려주셔서 행복하게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적었던 곳으로 오셔서, 홀로 애써오신 세월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간의 수많은 에피소드야 다 들을 수도 없고 헤아릴 길도 없지만, 22년 동안 지내왔다고 술회하는 목소리는 차분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지원해준 사랑방교회에 대한 고마움도 나누셨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 해주셔서 다함께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고 했지만, 왕성하게 활동하고 섬김을 이어가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탄 교회의 최경희 목사님도 은혜로 이어지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마을에서 공부방을 만들고 아이들을 모아 가르쳤던 것,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문을 닫게 된 것, 이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가 회복한 것까지. 그 와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경험한 것들도 참 귀중한 이야기였습니다.

더위가 조금 가신 오후부터는 작업 복장을 하고서 주변 환경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톱, 호미, 대형가위 등을 동원해 정원에 핀 잡초를 뽑고, 울타리를 타고 오른 잡목을 제거했습니다. 해가 질 때쯤 해서 끝나치고는 미리 준비해주신 숙소를 통해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게 된 것 같아 송구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먼 길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이런 따듯함을 마음에 담아가게 된다고 생각하니 못 올 길은 결코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다음 번에는 언제 올까'를 생각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손희정 사모님을 푸른꿈사랑방에서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동 사역의 역사와 현지인들이 겪는 아픔들을 생생한 이미지로 몰입하며 들었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어 보이는 얼굴들도 듣다보니 눈을 빛내기도 하고, 안타까움에 한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종교 문화, 증오의 연쇄에 얽혀있는 지역과 민족간의 뿌리깊은 원한들, 곤살 한계에 부딪치는 국제 사회의 공조와 지원, 무관심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들까지 짧게나마 전해받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기에 모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생사가 오가는 문제들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마음 속에 다시금 일깨워진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문제에 앞서서, 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름으로 무엇이 전해지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게만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인생의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보게 되지요.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 더 낫다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모든 어린이와 푸른꿈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마음을 쏟고 기도했습니다.

더구나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선교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는지도 함께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꼭 선교사만 선교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길 요구받고 있습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선택과 언행이 사람의 신념을 드러내듯이, 기독교인의 믿음 또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접하니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사님의 삶을 접하는 모든 사람의 내면이 은혜로 감동하고, 믿음을 향한 삶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도움의 손길도 함께 베풀어주세요.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

<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369 200 / 370

기도 :

성경 : 역대하 20장

제목 : 여호사밧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다

1. 온 백성이 모여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였다 <3-12>

- 1)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였다.(What)
- 2) 전쟁,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한다.(Why)
- 3) 공적 난국, 먼저 모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하자.(How)

2.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나 하나님께서 맡아 하는 것이다 <13-20>

- 1)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나 하나님께서 맡아 하는 것이다.(What)
- 2) 전쟁,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Why)
- 3) 공적 난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싸우십시오.(How)

3.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21-30>

- 1)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그들을.(What)
- 2) 전쟁, 그렇게(감사) 찬양하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Why)
- 3) 공적 난국, 감사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자.(How)

저는 윤치후입니다 ?!

안녕하세요. 멧쟁이학교 5학년 윤치후입니다.

제가 주보글을 처음 써보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러운가요? 아니어도 모른 척하고 칭찬해 주세요 ㅎㅎ

저는 어린이학교 때부터 사랑방을 다니고 있는데, 멧쟁이 5학년이 나 돼서 주보글을 처음 쓴다니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19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 다. 당시에는 저 스스로의 의지로 교회에 나갈 만큼의 신앙도 없었고, 집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다 보니 약 4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 니다.

그러다 올해 초부터 다시 주일성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에는 ‘계속 나가 보자’ 하는 의지가 뚜렷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 번 나오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계속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반년 동안 다시 교회에 나오면서 단순히 신앙이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교회 분들을 만나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나오지 않았는데도 항상 반갑게 맞아 주시고 안부를 물어봐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이제 꾸준히 나오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제가 멧쟁이부터 다닌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4살 때 재롱이부터 이 공동체와 함께했습니다. 완전 토박이예요!

앞으로는 제가 여기 토박이라는 걸 모두 아실 수 있도록 얼굴도 자주 비추겠습니다. 원하지 않으셔도 보셔야 됩니다.

푸른꿈사랑방 윤치후 학생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 편 105 : 1-4 인도자
33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가복음 2 : 17 인도자
216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디모테전서 4 : 7-8 설교자
325 따뜻한사랑방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설교자
430 다함께
인도자
288(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병우 정영옥 / 봉헌위원 : 이승호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를 넘어
참된 신앙의 실력을 키우는
경건의 훈련에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개인의 신앙.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실패는 신앙이 자동적으로 보장되거나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부모의 유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로 맺어가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경건의 훈련. 여호람의 선택은 편리함을 핑계로 한 영적 파멸의 길이었습니니다. 참된 경건은 수월하고 타협하는 방식을 거절합니다. 신앙의 훈련은 지루하고 고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날마다 그 과정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상의 실력.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일상의 훈련을 통해 신앙의 실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박태규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양양으로 2박 3일 여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계속 비 예보가 있었지만 꾸러기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행 내내 가장 적당한 좋은 날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양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설악산꼭대기에 구름이 잔뜩 얹은 것을 보며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노래를 불러주었더니 돌아올 때까지 꾸러기들에게 설악산은 구름 모자를 즐겨 쓰는 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멋진 설악산과 친해진 기분입니다.

숙소로 지낸 쏘비치는 해변과 오션플레이(물놀이장)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라 둘째 날에는 오전엔 바다, 오후에는 오션플레이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꾸러기들에게 별명을 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별명은 바로 ‘물개’입니다. 오션플레이에서 오후 6시 마감 시간까지 꼭 채우고 나왔는데 꾸러기들은 그마저도 아쉬워했습니다. 물개들 맞지요? 마지막 날 점심식사는 정태일 목사님과 이월영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나영 선배님이 함께 했습니다. 메밀막국수와 수육을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포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꾸러기들이 다음 여행에는 세 밤을 자고 오고 싶다는 군요. 사랑스런 우리 꾸러기들 많이 즐겁고 행복했나 봅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꾸러기와 멋쟁이는 화요일부터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고 어린이만 등교한 지난 한 주 간.

일단~ 월요일 아침에 귀한 손님이 어린이학교에 방문하셨습니다. 바로 요르단 선교사님이신 손희정 사모님! 어린이학교 예배 시간에 특별히 오셔서 요르단에서 하시는 시리아 난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말씀을 들으니 난민들의 사정이 어떤지, 캠프촌의 난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선교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린이 친구들 모두 한마음으로 요르단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장마철이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려서 이번 학기 마지막 줄넘기 시간에 예고되었던 물총싸움은 무산될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하

게도 줄넘기 시간이 다가오니 해가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줄넘기 선생님과 어린이들은 모두 마당에서 준비해온 페트병으로 신나게 물을 쏘아댈 수 있었고, 덕분에 올여름 즐거운 추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며 통합반별로, 학년별로, 그리고 학생회 부서별로 피드백이 연이어 있었고, 토요일부터는 1학기 학부모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면담은 월요일까지 이어지는데 학교와 가정이 잘 연합하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도움 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는 중에 1학년 세 친구와 6학년 두 친구가 토요일에 열린 포천시 체육회장배 줄넘기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기록을 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평소에 연습한대로 기량을 잘 발휘한 친구들, 정말 대견합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학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종강여행으로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장맛비가 예정되어 있던 예보가 있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은혜롭게도 우천으로 인한 불편은 거의 겪지 않았습니다. 첫 날에는 금강산전망대를 방문하여 여러 전시물을 구경하며 분단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서 금강산까지 볼 순 없었지만, 뜻깊은 한 때를 보내고, 바다가 코 앞에 있는 숙소에서 몸도 쓰고 머리도 쓰며 협동심을 다지는 레크리에이션을 했습니다.

두번째 날에는 다들 기대하던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모래장난도 하고, 조개나 게를 잡기도 하고, 코트를 설치해 배구를 즐기기도 하고, 물 속에서 파도를 타고 기마전까지 했습니다. 낮에 정신없이 놀며 체력을 다 쓴 줄 알았지만, 저녁 공동체훈련 때에는 집중력을 발휘해 서로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셋째 날에는 많은 남학생이 기다리던 축구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가족분들까지 함께 오셔서 참여하신 가운데, 모든 멋쟁이들이 온 몸을 던져가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월드컵보다 재밌었던 경기들을 여러 감정과 함께 뒤로 하고, 목욕탕에 가서 뽕송뽕송하게 씻고 코스트코에서 배를 양껏 채웠습니다. 피곤하기도 했지만 충실했던 여행의 내용들을 피드백 시간에 함께 나누고, 각자의 짐을 정리하며 다음 학기를 위한 총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 멋쟁이 학생회를 이끌 회장으로는 윤치후 멋쟁이가, 부회장으로는 최을 멋쟁이가 당선되었습니다. 총회 및 가족회의가 우리와 같은 갈채와 환호성으로 끝나면서 방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멋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서른의 나는

1년 전 썼던 편지가 도착했다.

「2025 상반기 끝에 쓰는 편지. 더 이상 힘든 일 없길 바라! 많이 웃고, 울고, 사랑하고 있지? 스물아홉, 처음 겪는 일이 많았어. 서른은 좀 평안하니? 자신 있게 대답하면 좋겠다. 어떤 결정들을 내렸니? 어떻게 책임지고 있니? 뭐든 삶은 과정의 연속이라는 거 잊지 말고, 정진하라! 잘할 거야. 늘 그랬듯. 2025 06 21 토 성수에서」

작년 이맘때 예측 불가능한 일을 겪으며 힘들어했다.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던 일. 고통은 놀랍도록 쉽게 잊힌다. 또 어떤 고통은 미화되어 추억으로 남는다.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를 들으며, 또 체리필터의 <해피 데이>를 들으며 어른이 된다는 건 내 안의 평범함을 인정하는 거라고 배웠다. 서른은 놀랍도록 특별하지 않다. 힘든 일도 처음 겪는 일도 없다.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보단, 익숙한 답을 많이 꺼낸다. 요즘 나는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그냥 이렇게 시간에게 많은 것을 맡긴 채? 참 덧없네.' 이런 생각을 한다. 어른이 된 걸까?

또 이런 생각도 한다. 감사와 인격 성숙의 비례에 대해. 감사는 내가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심지어 나의 존재조차 타인의 존재에 빚지고 있음을 인정함부터 시작하기에.

덧없음과 감사 사이, 문득 고개를 드니 해가 길어졌다. 그래, 이제야 여름이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성아 집사

<주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397장, 365장

성 경 : 잠언 4장 23~27절

말 씬 :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세계 분쟁 지역의 평화협상을 위해>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서 평화 협상을 향한 중대한 외교적 움직임과 동시에, 전장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분쟁 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이 땅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성령께 의지하여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몸과 마음이 아파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여행 중에 있는 꾸러기학교와 멋쟁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이번 주일 공동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계속되는 비로 인해 곳곳의 배수상태를 걱정한 한주였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랐지만 침수된 곳 없이 밭 작물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꾸러기와 멋쟁이들이 종강여행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중이어서 안전을 위해 마음모아 기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데 사랑방 식구들 모두 건강 해치지 않고 이 여름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미 전도사>